

공동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교류회의 참석자

- △ 이충원 이사장
- △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 △ 민창준 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 △ 이춘화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 △ 김용환 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 △ 이광재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 △ 이재환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 △ 정용식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 △ 김원희 전산정보부회 간사장
- △ 안태복 감사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과 동경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아사노)의 교류회의가 '21세기 글로벌시대 한일 인쇄산업의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아래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동경도인쇄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사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인쇄조합을 방문했을 당시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또다시 서울인쇄조합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충원 이사장은 답사에서 "인쇄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말처럼 인쇄산업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양국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이번 교류회의의 한국 측 대표단으로는 이충원 이사장 외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 대표단은 아사노 이사장 외 7명이 참석했다.

니스 적으로 연관시켜 활성화 시켜나갈 것인가 둘째, 정리,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관리하기, 정검, 규칙 지키기 등 작업환경을 개선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는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의 변화에 대한 업계의 노력단계이다.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고객 만족을 위한 인쇄업계의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념을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투자에 의한 자금 창출은 현재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변화시킴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각자 회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점회귀'라는 책을 제작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원점이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와 함께 현 상황을 원점으로 놓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원점회귀는 크게 7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7가지(1.경영전략 2.경영자의 생각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 2. 영업전략 3. 생산전략 4.IT기반전략 5.환경기반전략 6.소프트화 및 서비스화 7.동업) 이루어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각 회사의 현재 상태와 경영자와 실무진의 사고의 차를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사원들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비전을 제시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회사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차이점에 대한 수치화를 통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변혁의 포인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더욱 강화시켜 나갈

동경도조합 - 원점회귀(原點回歸) 業 態變革 7Keys 추진

동경도조합은 인쇄업계 변혁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첫째, 인쇄산업과 인터넷·IT산업을 어떻게 비즈



이충원 이사장(서울인쇄조합)과 동경도조합이사장(아사노)의 선물교환모습



교류회의 모습



일본인쇄회관앞에서 양국 대표단 기념촬영

것인가와 비즈니스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가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각자가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예측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리스크 발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가 2단계 작업이었으며 1단계와 2단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3단계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교류회의에는 동경도 출입 기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주제로 질의 이어져

Q (서울인쇄조합) 서울인쇄조합은 오는 9월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본에도 이러한 시상이나 축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A (동경도조합) 디지털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마추어의 인쇄물 품질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우리 업계는 뛰어난 품질로서 프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인쇄업계는 환경을 우선 시 하는 올 4월부터 인쇄물, 자재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쇄와 접목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 장려해 나가고 있다. 21세기는 분명 20세기와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자는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쇄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인쇄물 수출의 지역과 물량이 어느 정도이며, 조합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또한 CD물의 경우는 어디까지 인쇄업계에서 제작하고 있는가?

A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급 인쇄물에 한하여 적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에 대한 조합의 특별한 지원은 없다. 그리고 CD제작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거의 제작을 하고 있으며 인쇄업계의 경우는 CD케이스 정도만 인쇄하고 있다.

Q 동경도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어떤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A 조합의 가장 중점사업은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경영관련 조사와 분석을 통해 조합원사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Q 조합과 조합 단체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인쇄업체가 1:1로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향이 어떠한가?

A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 또한 미디어협회에서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출판단지를 방문하고자 한다.

Q 한국에서는 법률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라던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등의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떠한지, 아울러 창조적 마케팅 및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본에서는 전자회로 개발 중 IC회로 칩을 인쇄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조합 자료제공)